

1980년대 지역문화운동과 낙동강

- 무크지 『토박이』와 이문열의 「하구」를 중심으로

박수정(부산대)

1. 지역문화운동과 『토박이』

1) 1980년대와 지역문화운동

- 문단의 중심축을 형성하던 <창작과비평>, <문학과지성> 두 계간지가 1980년 '언론기본법' 제정 흐름과 함께 폐간되며 잡지와 단행본을 결합한 '부정기간행물(MOOK)' 출현
- 부산에서 문화운동의 의식이 발아되기 시작한 기점은 1970년대 중후반으로 서울 예측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
- “막연히 주장되어오던 민중이라는 뿌리없는 개념 대신 한국자본주의의 전개과정에서 자연과 노동의 시·공간적 결절점이라는 자본축적과정과 그에 따른 구체적 생산대중의 활동공간으로서의 지역 개념, 그 지역의 담당자라는 구체적인 역사현장의 지역민중의 발견으로 연결되었다.”
(「부산지역 문화 운동론」, 『토박이』 2집)
- 이 시기 지역문화운동은 여성운동, 노동운동, 환경운동 등 다양한 운동과의 연대에 기반해 있으며 무크지 『토박이』 (1984, 1986) 또한 부산의 노동 현실과 환경오염 등을 조명하고 있음

2) 『토박이』의 지향

- “낙동강 모래톱을 묵묵히 일구어 오래도록 벼판 내일을 바라며 살아온 사람들, 또 그렇게 살아온 술한 이름없는 사람들이 정녕 토박이다.”(「머리말」, 『토박이』 1집)
- “부산의 현 위치를 자리매김하려고, 부산의 문화사 및 그 실체인 사회사를 역사적인·구조적인·총체적인 시각으로 정리해 본다. 부산 지역 나름의 독자적이고 지역자치적인 새 문화의 형성에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머리말」, 『토박이』 1집)
- 부산의 문화사와 사회를 부산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일은 박정희 정권의 개발동원체제에서 중앙으로 종속되어 가는 지역의 자율성을 되찾고자 하는 하나의 주요한 전술이 됨
- 시민대중의 자발적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으며, 근대주의적 욕망 바깥의 부산을 상상하고자 함

2. 왜 낙동강인가

- 1960~70년대 경제발전기 무분별한 경제 성장 정책으로 인해 낙동강 오염 심화
- 경제성장, 국민 수준 향상에 따른 용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과 물의 관계가 긴밀해지며 하천 환경 및 수변 공간 개선이 중요시 됨
→ 1983년 낙동강 하구둑 건설 착공
- 낙동강을 '개발'의 시선으로 객체화하는 근대주의적 관점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개발 이전의 낙동강 모습을 조명하고 낙동강 오염의 문제를 가시화하는 『토박이』의 작업은 국가 지배 장치가 위계화한 관계들을 재구축할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음



3. 이문열의 「하구」(1981)와 낙동강

- 「하구」는 ‘강이 끝나는 지점’이라는 뜻의 ‘강진’이 배경인 작품으로 부산의 ‘하단’과 동일한 뜻을 지니고 있음.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부산이 갖 직할시가 된 1960년대 후반 무렵의 하단 포구 일대를 배경으로 함
- 「하구」에 묘사된 강진은 안개와 갈대가 무성한 곳으로 ‘나’에게 강진은 “가난”과 “진한 소주 냄새가 배”인 장소로 기억됨
- 학교 바깥에서 방황하던 ‘나’는 “크게 벗어난 삶의 궤도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강진으로 와 점성고시와 대입을 준비했으며, 대입에 성공한 뒤 강진을 떠남
- 부산의 근대화가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981년에 근대화가 시작될 무렵의 강진을 회상하며 강진을 ‘가난’, ‘소주’, 저개발 지역 등으로 포착하는 일은 로컬을 저발전과 비문명의 공간으로 고착화하고자 하는 중앙의 욕망과 연결됨
- “강진은 그저 자욱한 안개와 무성한 갈대와 밤새워 울던 구성진 뗏새 소리로 이루어진 추상으로 변해 갔다.”
- ‘나’는 강진 사람들의 내력을 소문으로 들으며, ‘나’가 직접 관계 맺는 강진 사람은 강진의 유일한 대학생 서동호와 요양을 위해 강진에 머무는 별장집 남매 등에 한정됨
- 강진의 이야기를 자신이 들은 ‘소문’에 기반해 전달하며 강진을 ‘안개’로 기억하는 ‘나’의 모습은, 그가 강진을 직접 경험하며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장소가 아니라, 중앙으로의 편입을 위해 잠시 머물다 떠나야 할 임시적이며 추상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냄

4. 『토박이』와 낙동강

- ‘낙동강 보존회’는 하구 일대를 매립하여 인구 60만명 규모의 도시를 세우겠다고 발표한 부산시의 계획이 지역주민의 삶과 생태계를 외면한 채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한 것이라 비판함 (「낙동강을 살리자」, 『토박이』 1집)
- 『토박이』의 필자들은 개발과 성장의 관점으로 부산을 사유하는 개발독재체제의 이데올로기 바깥을 상상하고자 함
- “강은 국가의 어느 기관이나 소수의 재력가의 것이 아닌 국민 모두의 「공유자원(共有資源)」이다. 특히 강은 유역주민들의 생명을 좌우하는 힘을 가졌을 뿐 아니라 삶의 질(質)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유역주민들에게만은 강에 관한 모든 문제와 대책을 사전에 알려야 하는 것이다.” (「낙동강-그 생명력의 부활을 위해」, 『토박이』 2집)
- “주민들은 우선 부산시 관계자들과 산업기지개발공사(이하 산개공) 실무진들이 측량 조사작업을 나오자 우선 대책을 세워주고 난 다음 측량을 하건 조사를 하든지 하라며 일곱 차례에 걸쳐 작업을 방해했다.” (「을숙도-우리의 피와땀이 묻혀있는 땅」, 『토박이』 2집)
- 「하구」는 강진 주민을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지만, 『토박이』에서 주민들은 낙동강을 ‘개발’을 위한 수동적 객체로 인식하는 개발독재체제에 대항하여 직접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소묘됨
- 낙동강 하구의 기억을 되짚으며 생태계 회복을 희구하는 목소리들은 낙동강이 인간과 더불어 다양한 생물종이 참여하고 섞이며 만들어진 복수의 세계라는 점을 상기시킴